

中 미술계의 이단아, '한국 화단'의 이웃이 되다

제주도에 개인 작업실 마련한 평정지에 화백

“그의 작품을 처음 봤을 때 중국 작가가 이런 체제 비판적인 그림을 그려도 되는가 해서 놀랐다. 그림 속 여인은 마치 남자의 입술을 부르는 듯 탐스럽다.”(박서보 화백)

“그를 진심으로 존경한다. 이런 큰 작가를 지닌 한국 화단은 이미 높은 수준에 올라 있다.”(평정지에 화백)

지난 19일 밤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의 도립 현대미술관. 중국 화가 평정지에(45)의 개인 초대전 개막식에 참석한 수백명의 관객 앞에서 한국의 박서보(82) 화백과 평정지에 작가는 서로 주머니 받거나 칭찬하느라 바빴다. 평정지에는 최근 자신의 네 번째 개인 작업실을 미술관 옆에 마련했고, 이곳에 작업실을 갖고 있던 박 화백과 길 하나를 놓고 이웃사촌이 됐다. 두 '거장'은 이미 수년 전부터 왕래하며 두터운 신뢰를 쌓아왔다.

박 화백은 “중국을 방문했다가 그의 작품을 우연히 접했는데 어눌하고 투박한 화풍 속에 시대정신을 녹여내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었다”고 회상했다. 그는 “평정지에게 이웃이 돼 앞으로 작품 활동에 서로 많은 영향을 주고받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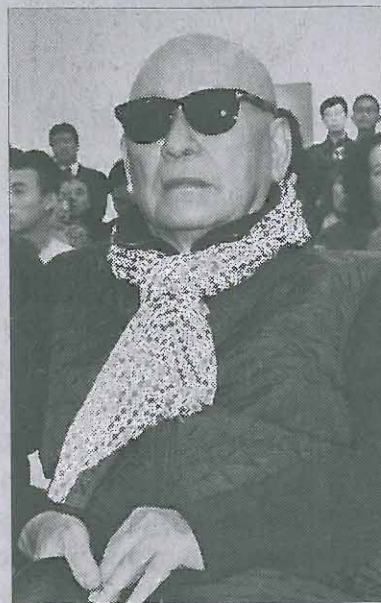
평정지에도 “서울 시내의 한 대형 갤러리에서 비공개로 마련된 작품전에서 박 화백의 작품을 처음 봤다. 이때부터 박 화백의 팬이 됐다”고 화답했다. 박서보가 이종섭, 박항섭, 허백련, 백남준 등과 함께 한국 근현대 미술의 대표 작가라면 평정지에는 장사오강, 쩡판즈 등과 함께 세계 미술계가 눈독을 들이는 중국의 스타 작가다.

한창 몸값을 올리며 아시아는 물론 유럽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는 평정지에는 중국 베이징과 쓰촨, 싱가포르에 이어 최근

박서보 화백 바로 옆에 정착
예술인 마을 해외 1호 작가

“박 화백 작품 보자마자 매료
韓 미술계는 이미 높은 수준”

12월 7일까지 개인전 개최
회화·입체 등 40여점 선보



평정지에 전시회에 참석한 박서보 화백.

제주에 새 작업실(215㎡)을 마련했다. 예술인 28명이 정착한 제주 예술인마을에서 ‘물건너온’ 해외 작가로는 처음이다.

그는 “작업실 주위에 한국의 내로라하는 작가들이 많이 있어 영광”이라며 “새 작업실은 앞으로 작품 구상이나 작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생각하는 장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전시도 평정지에의 작업실이 건립된 기념으로 기획됐다. ‘평정지에의 유우색(游于色)’이란 제목으로 회화, 입체, 설치 등 40여점의 작품을 오는 12월 7일까지 선보인다. 전시에선 하얀 얼굴에 두 눈동자가 사시처럼 쏠린 여인의 초상화와 ‘평정지에 핑크’라고 불리는 강렬한 색채의 그림 등 대표작들을 만날 수 있다. 당나라 한시를 배경으로 그린 신작은 어눌한 원색의 화풍으로, 우리 민화를 떠올리게 한다. 김운섭 한국미술경영연구소장은 “그의 작품은 급변하는 중국 사회의 불안을 반영하고 있다”면서 “현재 진행형인 그의 화풍이 제주를 배경으로 또 어떻게 변화할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평정지와 10년지기인 박철희 베이징 문갤러리 대표는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밟을 때 그의 작품전을 보러 다니다 친해졌다”며 “2년 전 여행차 함께 제주를 들렀을 때 그가 이곳에 작업실을 갖고 싶어 했는데 그 꿈이 실현됐다”고 설명했다.

이웃들은 벌써부터 평정지를 ‘봉정굴’이라 부른다. 김치찌개와 해장국을 좋아하는 그의 한자 이름을 그대로 읽은 것이다. 미술계에서는 평정지를 시작으로 중국 작가들의 제주 ‘원정 작업실’ 붐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는다. 한 화랑 관계자는 “문화 역량의 다변화 측면에선 해외 작가 유입이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도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글·사진 제주 오상도 기자 sdoh@seoul.co.kr



사시 눈을 가진 여성의 얼굴로 '중국인의 초상' 시리즈를 그린 중국 작가 평정지에.